

지속가능 광주 발전에 기여하는 따뜻한 공기업



광주대표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는 2023년을 맞아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대규모 연구개발특구인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 서민 주거 안정 정책 추진 등을 본격화한다. 사진은 무등산 서석대에서 바라본 광주 시내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가 지역 미래산업과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 서민 주거 안정 정책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지역 대표 공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023년에도 집중하게 될 5대 사업과 성과 등을 분석해 본다.

◇광주 미래 걸린 첨단 3지구-에너지클러스터 단지 조성 박차=광주도시공사는 광주의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집적단지과 국립심뇌혈관센터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연구개발특구인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AI 집적단지 부지조성 공사와 데이터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부지조성 공사(1·2·3공구)도 본격화하고 있다.

공사는 또 전국 최초로 지정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핵심 거점인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돼 국토부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에너지밸리의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90%를 넘어섰다.

광주 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에너지산업은 에너지효율 향상과 스마트그리드 분야로 오는 2024년까지 2200명의 신규 일자리와 110개의 기업유치, 72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서민 주거안정 위한 양질주택 공급=공사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으로 구도심의 지역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사업은 에너지·교통·안전·환경 등 4개 분야 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해 구도심의 대표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실시계획 승인까지 완료하고, 3개소의 공공재개발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북구 임동 도시재생 발전의 구심점이 될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디지털 창작소 건립사업도 완료돼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양림동 디지털 창작소 건립 등으로 양림역사문화마을 인근 주차난 등을 일부 해소한 것은 백미로 꼽힌다.

공사는 이 밖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222세대의 주택공급도 본격화하고 있다. 상무지구 통합 공공임대주택(460세대)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내 '누구나 집' (762세대) 건립사업은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과정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주거약자 지원 서비스 강화=공사는 지난해 노후 임대주택 750세대의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하는 성과를 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축물의 가치 향상을 돕는 환경친화형 사업 방식이다. 공사는 앞서 2021년에도 650세대의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한 바 있다.

공사는 또 전국 최초로 LH와 협업을 통해 광주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주거 약자를 돕고 있다. 센터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주거서비스 제공과 이주 지원 등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 지원을 목표로 임대주택 우선 공급방안을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주거 상향 지원사업, 청년주거 확대사업, 영구임대 공동체 재생 시범사업, 주거복지 공모사업 등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에너지 밸리 조감도

미래산업·맞춤형 도시재생 등 올해에도 5대 사업 중점 추진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 '우뚝' 동반성장 협력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지방공기업 ESG 경영 선도=공사는 지난해 ESG 경영 비전“(E) 탄소중립도시, (S)따뜻한 지역공동체, (G)신뢰받는 도시공사” 달성을 목표로 지속가능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ESG 경영 전략과 128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해 공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과 업무를 ESG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광주도시공사는 2022년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장관상을 비롯한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 한국경영인협회 주관 ESG 경영대회에서 '대상'까지 수상했다. ESG 분야별 대외 성과도 두드러진다. 환경(E) 분야에선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을 3년 연속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S) 분야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2년 연속 유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3년

연속 선정과 함께 광주·전남 사회공헌 대추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거버넌스(G) 분야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2년 연속 유지하고,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도 도시개발공사 부문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도시공사는 또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혁신과 성과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해 주력사업의 조직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서장 역량평가제 도입 등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관리체계 구축했다. 공사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인사혁신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3회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 조성 기여=공사는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과 연료전비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농성동 빛어울림에 태양광을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를 마치고 지난해 광주 교통문화연수원 주차장 부지에 377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완료했다. 진행 중인 한국 전기연구원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이 완료되면 약 590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통해 첨단 3지구를 에너지 자립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근 사장은 “지속가능한 광주 발전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따뜻한 공기업이 되도록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반성장 협력사업, 소상공인 대출 지원, 임대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광주의 미래를 이룰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감도



상무지구 평생주택 조감도